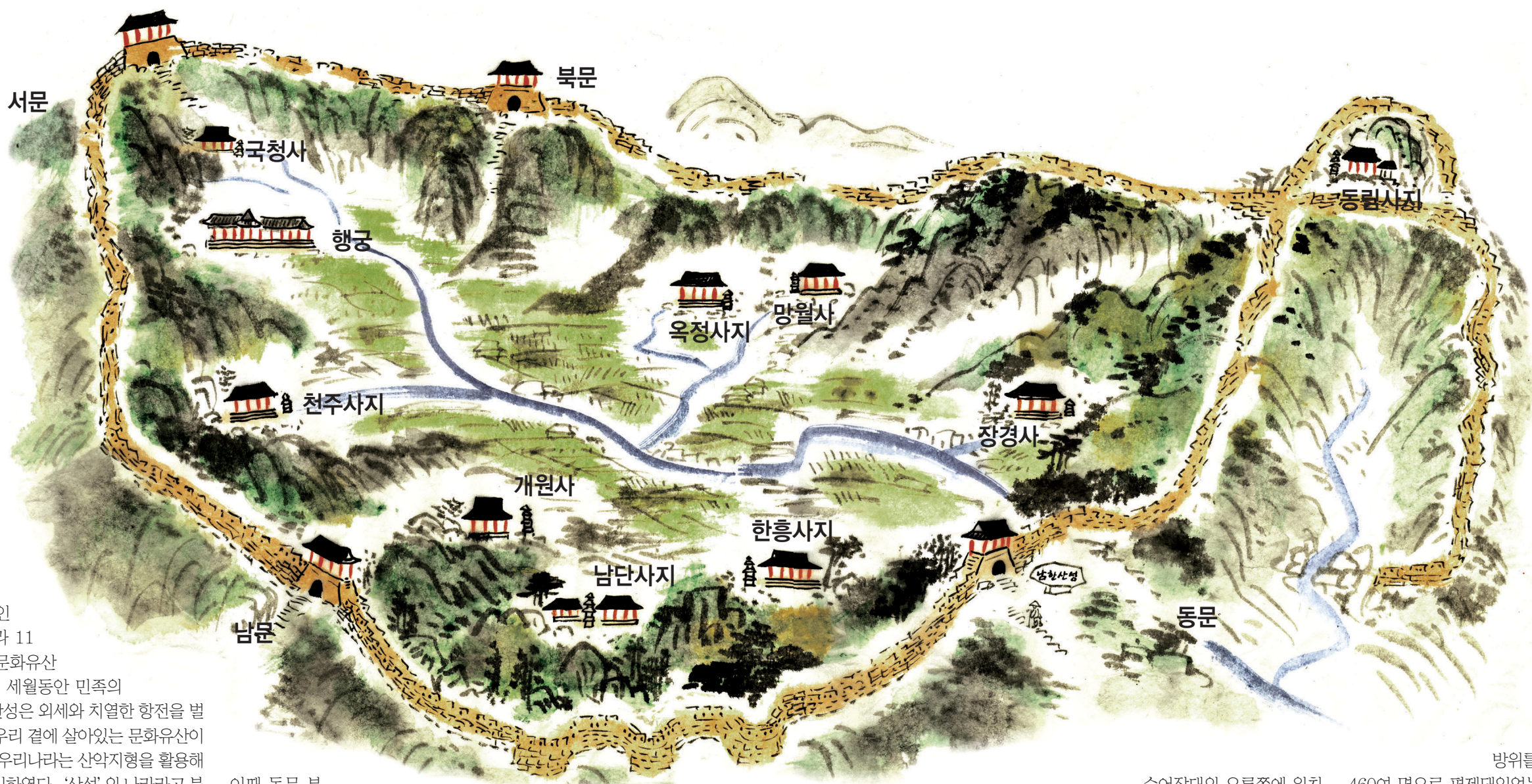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승군, 예불 간경하며 축성한 호국성지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이 우리나라 11

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됐다. 오랜 세월동안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남한산성은 외세와 치열한 항전을 벌인 호국의 현장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을 활용해 성을 쌓아 국가를 방비하였다. '산성'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산성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성곽요소를 띤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이러한 성곽요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한산성은 특히 스님들이 직접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았으며, 사찰을 지어 외적을 방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인조2년인 1625년 남한산성이 축성된 이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호국의승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한산성은 산성 내 사찰이 산성방어시설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찰이 9곳에 달한다. 승군사찰에서 전국의 스님들은 수행과 동시에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시대 억불숭유가 팽배했던 시절 호국불교로 입했던 불교계의 모습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승군사찰 일본군 방화로 전소

그렇다면 현존하는 남한산성 승군사찰은 어디인가. 남한산성의 사찰들은 대부분 1600년대 초에 세워졌다. 남한산성 성곽을 따라 군사시설인 4장대와 함께 사찰이 빙 둘러 자리하고 있다.

남한산성 내 사찰 중 신라고찰인 망월사와 옥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벽암 각성스님이 축성과 수성을 위해 만들었다. 남한산성 내 승군사찰들은 일제시대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다. 한양 인근의 의병들이 남한산성의 승군사찰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이다. 1907년 8월 승군사찰들이 의병들의 근거지로 탄로나자 일본군은 당시 무기고 등으로 활용된 사찰에 불을 지른다.

이때 동문 북

쪽의 장경사를 제

외한 8개 사찰이 전소된다. 망월사·개원사·국정사는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나머지는 5개 사찰은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아 폐사지로 남아있다.

산성 방어시설 9곳 승군사찰 지금은?

승군사찰 중 본영을 담당한 개원사는 현재 남한산성 성역사관 옆에 자리하고 있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본영인 만큼 불경이 많았으며, 쌀 몇 섬이 한 번에 들어가는 무게 200여 근의 술이 4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본군의 방화 이외에도 1970년 화재가 발생해 법당, 누각 등이 전소됐다. 1971년 옛 개원사 터에 복원불사가 진행됐으며 1985년 개축과 복원 등으로 현재 모습을 하고 있다.

망월사는 9개의 승군사찰 중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망월사는 태조 이성계가 도성을 정할 때 한양의 장의사를 허물고 그곳의 성벽을 망월사에 보관했다고 한다. 현재는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 5개 등이 복원돼 예전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다.

장경사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 청량산 망월봉 중턱에 대웅전·종무소 등 건물 3동과 사리탑 등으로 구성된 작은 사찰이다. 이 곳은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일본군의 방화에 가장 적은 피해를 당했다. 1975년 화재로 소실돼 다시 중창됐으며, 1988년 대웅전 중축 등을 거쳤다. 장경사의 전 남부 남쪽에는 전망대가 있어 이에 오르면 산성의 경치가 두루 살펴진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누각자리만

이 남아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다.

국정사는 남한산성 서문에 자리한 사찰로 1624년 건립됐다. 지금의 국정사는 일제에 의한 파괴 이후 옛터 인근에 대웅전과 요사채 등을 새로이 건립한 사찰이다. 국정사에는 병을 낮게 해주는 샘물이 나와 피부질환을 앓는 이들의 발길이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는데 여러 명사들도 즐겨 찾았던 곳이다. 국정사에는 성삼문 친필 병풍 1점과 송시열 친필 3권도 함께 전해진다.

나머지 사찰들은 폐사지 형태로 남아있다. 남단사지는 남한산성 남쪽에 자리하며 정남쪽인 남장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홍사와 함께 방비를 하였다. 개원사 동쪽으로 남단사 옆에 지어진 한승사는 각성선사가 우리나라가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곳이다. <남한지>에는 한홍사 승려가 종이와 산나물, 순무 등을 진상해 종이는 비구에게 내리고, 무와 나물은 종신과 부마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동림사지는 남한산성 9개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다. 주적이 북쪽에서 오기에 방비를 위해 건물이 모두 북쪽으로 지어졌다. 동림사가 자리했던 별봉은 남한산성 안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옥정사지는 망월사와 함께 남한산성 축조 전부터 있었던 고찰로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옥정사는 북문 안 남쪽 기슭에 있는데 북문을 지키던 승군들이 기거했다.

수어장대의 오른쪽에 위치한 천주사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있다. 자연석 주춧돌과 유구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절터가 현재 경작지로 이용돼 문화재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한산성 쌓은 스님들은 누구인가?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남산지>를 비롯해 <남한가람지> 등에 있다. 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방어한 의승군에 대한 기록은 <남북한의승방변통정목> 등이 있다.

남한산성은 특히 벽암 각성 스님(1575~1660)과 인연이 깊다. 1575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각성 스님은 현종 1년(1660년) 사신으로 일본에 가다가 중도에 병으로 입적하기까지 86년을 오로지 국방의 임무와 중생교화에 몸바쳤다.

1593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는 스승 부휴 스님을 따라 의승군으로 나섰다. 부휴 스님을 20여년 간 시봉한 스님은 광해군때 의승군을 총괄하는 팔도도총섭의 직위를 받았으며 인조 때 다시 팔도도총섭을 맡아 남한산성을 쌓게 된다. 스님의 지휘하에 소집된 460여 명으로 편제되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예불과 간경(看經)을 하며 국가의 안전을 기원하였고, 낮에는 훈련을 받으며 유사시에 대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간경도감을 설치해 경전을 간행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승려들이 경전공부와 무예의 길이 둘이 아님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의승군은 남한산성 축성 이후 망월사·옥정사·개원사 등 9개 사찰에 흩어져 산성 방위를 담당했다. 승군들은 약

460여 명으로 편제되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예불과 간경(看經)을 하며 국가의 안전을 기원하였고, 낮에는 훈련을 받으며 유사시에 대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간경도감을 설치해 경전을 간행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승려들이 경전공부와 무예의 길이 둘이 아님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각성 스님과 의승군들은 아무런 국가의 도움없이 축성하여 당시 전란으로 피폐해졌던 민초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왔다. 조정은 남한산성에 이어 1711년에는 북한산성 축성도 의승군들의 손에 맡긴다. 북한산성은 중흥사를 본영으로 태고사, 국녕사, 원각사 등 11개 승군사찰이 있었으며 370여 명의 의승군이 번을 썼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의승군들은 갑오경장으로 승변제가 폐지되기까지 270년간 수도권 방위를 담당했는데 총 1년에 2개월씩 윤번으로 매 회수당 번을 서는 인원은 707~728명에 달했다.

의승군들의 번은 그 경비와 장비를 각자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경사는 화마의 피해를 적게받아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행궁과 서문 사이 자리해 중요한 방위 임무를 맡았던 국정사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 구채구, 황룡 6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17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워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퀴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